

<보이는 대로 느끼기...안젤름 라일리 개인전>



Anselm Reyle Exhibition view "Anselm Reyle" Arken Museum of Modern Art, Copenhagen (DK) Photo: Anders Sune Berg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소격동 국제갤러리에서 28일 개막한 독일 현대미술가 안젤름 라일리(43)의 개인전 '왓 어바웃 러브(WHAT ABOUT LOVE)'에서는 고물상에서나 볼 수 있을 듯한 풍경이 펼쳐진다.

어두운 전시장 구석 바닥에 공업용 부품, 건축자재, 부서진 액자, 아크릴 유리 파편, 반짝이는 네온 같은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쌓여 있다.

벽에는 아무 생각 없이 캔버스 위로 물감을 흘려 부은 것 같은 회화와 형광색 투명한 아크릴 상자처럼 보이는 액자 안에 알루미늄 포일을 구겨 넣은 평면 작업이 걸려 있다.

그러나 라일리의 작품 앞에서 '대체 작가는 관객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 했을까?'라는 질문의 답을 찾아내려 애쓸 필요는 없다.

28일 낮 전시장에서 만난 작가는 "내 작업을 감상하는 데에는 작품을 바라보는 관찰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관찰자가 무언가를 볼 의지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작가는 작품을 통해 계속 새로운 문제제기를 할 뿐이고 관찰자가 적극적으로 작업을 관찰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쓰레기 더미처럼 보이는 작품 앞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 하기보다는 버려진 일상의 오브제가 모여 만들어내는 시각적 이미지와 그에 반응하는 관람객 자신의 내면에 주목하면 된다는 뜻일 것이다.

폐자재 같은 쓰레기를 작품의 소재로 사용한 데에도 굳이 거창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문명 세계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소재로 사용한 것은 쌓여 있는 쓰레기들의 미학적이고 예술적인 의미를 생각했던 것이지 환경생태학적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려 한 건 아닙니다."

개념미술이라며 괜히 거창한 의미만 잔뜩 갖다 붙인 전시회에 지친 관람객이라면 한번쯤 가서 부담없이 감상하며 자신만의 느낌에 집중하면 좋을 듯한 전시다.

전시는 12월 31일까지. ☎02-735-8449.

mong0716@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1/28 16:14 송고